더블저주의 반환점

(막15:21-32)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없음)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더블저주의 반환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반환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라톤이 생각나실 겁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코스가 여러 종류의 코스가 있는데, 똑같은 코스를 한번 왕복하는 방식으로 코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반환점이에요.

반환이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어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우리나라로 돌려준다, 이런 게 반환이고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반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에서 반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갔던 코스를 그대로 다시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반환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인생에는 반환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꿈도 야무지시게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51살이기 때문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는 반환점이 없습니다.
그냥 51살이 되셨으면 100세를 사신다고 가정할 때, 인생의 절반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 반환점이라는 게 없지요.
전환점하고도 또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 왔던 인생의 특성과 색깔 모습과는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면 전환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환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반환점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반환점 운운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반환점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다시 역방향으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을 우리가 반환점이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는 반환점으로 받아들여질 때 복음이 아니라 더블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가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반환점이 되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면, 십자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빠져있는 저주의 상태보다 더한 더블저주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부터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 섞인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말하면서 '이

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또 십자가에 같이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게 하라.'
이것이 가볍게 조롱 섞인 말로 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람들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우습게 보여서 퍼부었던 이 비난의 내용,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이 조롱의 말이 2000년 교회를, 거개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실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주님께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내려 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못이 빠져나가고 면류관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부위가 다 씻은 듯 나아지면서, 애기 살처럼 회복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이 반환점이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직접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십자가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고, 잘못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의 교회, 아니 2000년 교회역사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이,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분인 것처럼 생각해서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할 것 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평강의 하늘나라에서 계시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세상의 타락을 보시고 답답하셔서, 긍휼이 여기셔서, 그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33년의 생애를 다 사시고 마지막 지점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인간들이 처해있던 저주 속으로

아들이 떨어지십니다.
아들이 버려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땅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움직이신 궤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궤적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왜 십자가가 연합하는 포인트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설교하고 있고, 아빠노릇하고 어느 직장의 직장인이고 선생님이고 교수이고 장사하고 있고 멀쩡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미국시민으로 캐나다 시민으로 다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저주 받고 죽는 저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신 겁니다.
내가 멀쩡해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멀쩡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저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주 받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 받은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저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 받은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고백할 경우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연합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연합은 죽을 때까지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라도 다시 부활을 반환점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아버지계신 하늘나라로 곧바로 승천해 버리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연합은 죽을 때까지 연합인 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면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궤적을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대신 저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십자가가 반환점이 되어버립니다.
반환점이 되어서 그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걱정과 슬픔이 주어집니다, 근심이 주어집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반환점으로 한 인생의 다른 것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막힘이 없이 형통을 주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많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삶으로 십자가를 반환점으로 이 세상으로 도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것이 맞는 믿음이라면, 한번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라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공생애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을 세상에 사시면서, 왕이 되셨다든지 로마를 무찔렀다든지 하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반환점으로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다음에 이 세상으로 도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형통한 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주님일 때에, 부활하신 다음에라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라도 되신 주님일 때에, 우리의 그러한 삶이 맞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 버리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반환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통과지점이라는 겁니다.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다시 되돌아 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죄 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국 게이트에요, 십자가가.
입국 게이트에요.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마음이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자, 건강해서 기뻐하자,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므로 기뻐하자.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는 반환점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더블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에 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토한 걸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가 사하여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죄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건강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취직이 잘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혼을 변호사나 의사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좋은 것, 이거 누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이 없으면 슬프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이 세상 안에 있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고, 내 아내와 남편이 좋고, 내 가정에 돈 많이 벌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좋고, 이 모~든 좋은 것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들이 다 세상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인데,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은 뒤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겠다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몸이라는 것을 옷처럼 생각해서 십자가라는 입국 게이트에 다 벗어버리고 마음이 빠져 나와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입관할 때 보면, 어제 만났던 따뜻했던 그 몸이 고대~로, 머리카락 하나 안 빠지고 고대로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은 떠난 버린 상태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몸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마음이 천국 안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붙잡을 때, 내가 몸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빠져 나와서,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왜? 몸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빠져 나와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좋은 것 찾지 않겠다, 세상에는 좋은 것 없다, 이제 내게 좋은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고, 그 아버지께 가기 위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좌 앞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결심을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있을 때 돈 벌면 좋았던 것과 돈 쓰면 좋은 것처럼, 건강하면 좋았던 것처럼, 애인 만나면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아버지 만나서 좋게 하시고, 아버지 가져서 좋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행복과 좋음과 평강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십

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확증하게 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반환점이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때문에 걱정이 생겨요, 당연히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몸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상황이 걱정거리로 내게 전해집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몸이 있으므로 느끼는 가난함에 대한 걱정이 웬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게 해 주세요!' 하고 기다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돈 때문에 걱정이 생겼던 마음이, 몸을 옷처럼 벗어버리고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리고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 마음이 아버지 때문에 기쁨과 평강으로 찰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에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에요.
또 반대로,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돈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
돈이 있음으로 마음이 안심하게 되는 상태는 더블저주에 빠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서 내가 마음이 안심하구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블저주입니다.
돈이 있어서 안심하는 건 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좌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서 기쁜 것은 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몸이 약해서 걱정하는 것은 좌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우선은 내 몸이 건강하건 약하건, 내가 돈을 벌었건 안 벌었건 일이 잘되건 안 되건, 먹고 살 길이 있건 없건, 우선은 몸에 십자가를 거치면서 벗어버린 옷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싫은 것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분리된 상태가 싫을 뿐이지요.
어떤 것도 싫고 좋고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게이트, 왕의 문,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국 게이트에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마음이 벗어버리게 되면, 이 육체는 벗어버린 옷처럼 거기 개켜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그럴 때 십자가 지점을 통과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내 몸이라는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몸에 대해 인격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몸에 대해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병을 고쳐도 광고하지 않아요.
전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기쁨을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돼요.
왜?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이 좋아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내가 자식에게 이래라저래라 해도 자식을 잘 키워봐서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기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기쁨을 더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내게 슬픔을 더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하늘나라로 십자가 게이트를 통하여 빠져나간 내 마음에 가득가득 하늘나라로 채워질 때에, 그때 이 몸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움직여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내 자랑으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반환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다면,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깜짝 놀라

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 입국 게이트를 날마다 통과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옷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마음이 옷을 벗듯이 몸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 따라 곧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입고 있는 한 세상을 사노라 보면, 자꾸 우리는 죄의 성향 때문에, 존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몸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상번제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가 반화점이 아니라는 얘기요, 십자가는 통과지점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린다는 얘기이고, 하늘나라로 가버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는 마음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매 생활 때마다 생활의 사건마다 십자가를 적용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반환점이 될 때에 십자가는 복음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블저주를 안겨주게 됩니다, 더블저주의 삶으로 빠져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퍼부었던 유대인들의 비난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되돌아오는 그런 반환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통과지점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벗어놓은 몸도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옷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